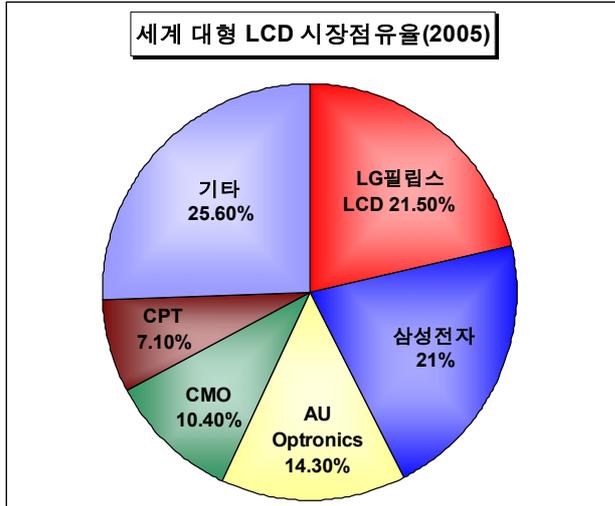


# LG필립스LCD-삼성전자 선두다툼

LCD 시장점유율 21.5%와 21.0%로 박빙 ... 3위 AU옵트로닉스 14.3%

LG필립스LCD와 삼성전자가 2005년 LCD 패널부문에서 타이완기업들을 큰 차이로 누르고 1-2위를 석권했다.



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2005년 LG필립스LCD의 대형 LCD 출하량이 4442만대로 시장점유율 21.5%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4332만대로 점유율 21.0%에 달해 근소한 차이로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3위인 타이완의 AU옵트로닉스는 2949만대로 14.3%에 그쳤고 4위인 CMO도 2142만대(10.4%)에 머무는 등 국내기업들이 타이완기업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LG필립스LCD는 모니터용 생산이 2390만대, 노트북

북용이 1390만대, LCD TV용이 610만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모니터 2230만대, 노트북 1540만대, LCD TV 540만대로 나타났다.

세계 대형 LCD 출하실적(2005)

(단위: 100만대,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5	시장점유율
LG필립스LCD	9.4	10.8	11.7	12.5	44.4	21.5
삼성전자	8.8	9.7	11.8	13.0	43.3	21.0
AU Optronics	5.9	7.0	7.5	9.0	29.5	14.3
CMO	4.0	4.9	5.8	6.7	21.4	10.4
CPT	2.8	3.5	3.9	4.5	14.7	7.1
기 타	10.7	12.5	13.5	16.1	52.9	25.6
합 계	41.7	48.4	54.3	61.9	206.2	100.0

디스플레이뱅크는 “2004년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했고 2005년에는 LG필립스LCD가 6세대 생산라인의 수율 제고에 힘입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양사의 경쟁이 치열했으며, 특히 2006년에는 양사가 모두 연초부터 7세대 생산라인의 가동에 돌입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01/04>